

시정질문 현황

[회기명 :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답변일 및 순서	의원명	질문내용	답변자
2009. 9. 11(금)	1 성명중	○ 관광시설관리소 시설운영에 대하여?	시장
	2 양순경	○ 제천시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시장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대하여?	자치행정 과장
	3 조덕희	○ 제천시 관내 등산로 훼손 예방 및 복구 대책은?	산림공원 과장
2009. 9. 14(월)	1 김봉수	○ 서부시장 불량 주택촌에 대한 제천시의 환경개선 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미래경영 본부장
	2 권전중	○ E-마트 입점에 앞서 E-마트 입구 도로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위험 예방대책에 대하여?	시장
	3 이정임	○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보호대책은?	미래경영 본부장
	4 김병룡	○ 제천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농업축산 과장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봉 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제천시장 엄 태 영
<p><u>질문요지</u></p> <p>○ 서부시장 불량주택촌에 대한 시의 환경개선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p>	
<p><u>답변내용</u></p> <p>○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시장 불량주택촌 환경개선계획과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p> <p>○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 시피, 제천시 서부동 431번지 일원에 위치한 서부시장은 1964년 12월 개설된 미인가 시장으로 현재 점포수는 26개이며, 89세대 156명이 거주하고 있고 면적은 11,920㎡입니다.</p> <p>○ 그중 약45% 5,365㎡는 향교 소유토지 이고, 나머지 6,555㎡는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현재 불량주택은 향교 소유토지에 집중하여 형성되어 있습니다.</p> <p>○ 우선 이러한 불량주택촌을 형성된 원인을 살펴보면, 서부시장이 2004년 12월 22일 제정 공포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률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어려운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사유재산인 주택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철거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것이 또하나의 원인이라 사료됩니다.</p>	

○ 또한, 현재 불량주택촌 건축물 권리자들은 서부시장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득권적 특혜를 기대하면서, 건물철거에 동의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불량주택촌 해결의 실질적인 걸림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간 불량주택 정비를 포함한 서부시장개발은 민간자본에 의한 18층 규모의 주상복합 타운 조성과 같은 시장 전체토지, 즉 향교 소유 토지와 민간소유 토지를 합한 11,920㎡를 대상으로 수년동안 민간사업자가 추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 방식은 초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목적시설이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등 최소 15가지 법률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토지소유자와 상인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이의 극복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 단기간내 분양과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재개발 사업이 2007년 12월 사실상 무산되어 더 이상 민간사업에 의한 빠른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부시장 개발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시가 시장기능 회복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상인들과 토지 소유자들의 자구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과 같은 적절한 기반시설이 설치될 경우, 현재 서부시장이 가지고 있는 골목형 먹거리 특징이 유지되면서 시설의 개량을 통한 시장기능 회복을 기대 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회복 노력속에 불량주택촌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서부시장내 상인들께서 한마음이 되어 필요한 공공시설의 종류와 위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규모는 시장기능 회복에 적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기준과 같은 법률기준에 부합 되면서, 다른지역 기반시설과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부시장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초안을 수립하여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치될 기반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내 상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시행가능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 협조지원과 관심갖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또다른 대안사업인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도 그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시 시장상인의 의견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업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지역에 대한 도시기능 회복 그리고 상권활성화등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수립대상 구역은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에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서부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불때 사업추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시행 주요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후 조합 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민간인이 시장과 공동으로 시행하여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게 됩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조합원이 되는 상인들의 의견 결집과 사업 시행 의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 보고드린 사항이 빠른시일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불량 건축물은 건물 소유자에게 외관정비와 자진철거를 적극 중용하고, 이미 건축물의 기능을 상실한 폐허가옥의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관 가림막 설치를 검토하는 단기적 대책을 병행하여 가시적 성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 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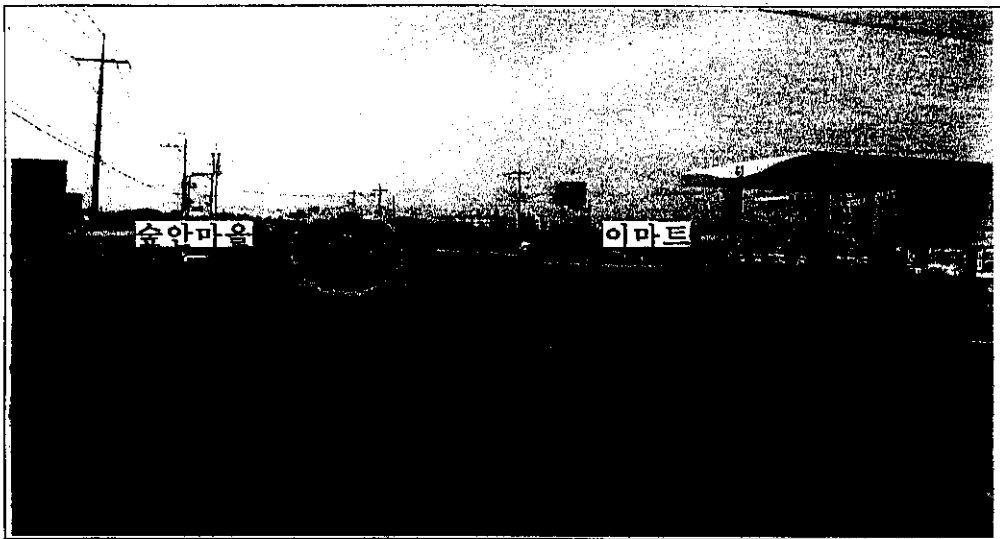
질 문 의 원	권 건 중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 변 자	제천시장 엄 태 영
제 목	E-마트 입점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p><u>질문요지</u></p> <p>○ E-마트 입점에 앞서 E-마트 입구 도로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위험 예방대책에 대하여?</p> <p>○ 이에 대한 제천시의 구체적인 대안 및 고명동 1,4,5통 주민들의 통행 대안은?</p>	
<p><u>답변내용</u></p> <p>○ 제천시장 엄태영입니다.</p> <p>평소 우리시의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권건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마트 입점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p> <p>○ E-마트 제천점은 충청북도의 『대형점 입점에 따른 개선대책(지침)』 및 충청북도의 유통업무설비지구 지정고시등에 의하여 입점하게 되었습니다.</p> <p>○ 아울러 E-마트 제천점이 입점되기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1일 (주)신세계에서 제천시 강제동 8번지</p>	

의 53필지 48,163m²에 대하여 판매시설, 화물터미널, 창고시설 및 지원시설 용도로 작성한 신청서가 우리시에 접수되었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2월 14일 충청북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충청북도에서는 2007년 6월 1일 강제동 유통업무설비지구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2007년 6월 1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우리시에 협의내용을 통보 한 바 있으며, 사업주인 (주)신세계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에 따라 E-마트 입구 국도변에 대한 교통시설물(교통신호기, 차선 등)을 일제 정비 하면서 교통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고명동 숲안마을 주변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태백선철도 시내 지역 노선변경에 따른 일부구간 철도노선이 변경(동현동 제일고 방향⇒고명동 고명역 방향)되었고, E-마트제천점이 2009년 10월 말경에 개점 예정으로 있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지역 주변 교통여건은 당분간 복잡해지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E-마트 입점에 앞서 도로교통 혼잡과 교통 사고 발생위험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첫째, 차량 통행량이 많고 내리막길로 되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숲안마을을 통과하는 5번국도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물(교통신호등, 안전표지판, 과속방지미끄럼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앙선 U-턴요구 사항은 아래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명역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제천경찰서에 교통규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E-마트 개점으로 대명카마트주유소앞 진입도로에 차량이 정체될 경우 국도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E-마트에서 질서유지 단속요원을 배치 근무하도록 E-마트 측에 요구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고명동 1통(한천), 4통(세거리), 5통(숲안) 주민들의 통행 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장평천을 축으로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중에 있어 이 도로가 완공되는 2013년이 되면 역전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해 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E-마트앞 교통혼잡 해소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수 년간 지역주민들의 여망이 담긴 도시계획도로[제방도로(L=820m, B=15m) : 숲안마을앞 ⇨ 두학천 제방경유 ⇨ 세거리 연결] 노선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숲안마을 입구에 위치한 장평교에 대해서는 통행량이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서측(E-마트진입 방향)과 마찬가지로 동측(숲안마을 방향)도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가속차선 확장 설치를 검토하여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도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700만대로 세계 14번째 자동차 보유국이 되었으며 1세대당 자동차 1대 보유시대에 도래 하였습니다. 교통대책에서 주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하는 대책은 없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교통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이 정 임 의 원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미래경영본부장 윤 종 섭
제 목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보호대책은?

질문요지

- 재래시장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은?
-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을 위한 지원내역(최근 3년간) 및 대책은?

답변내용

-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최대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의회차원의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정성을 다해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특히,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보호대책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는 이정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는 현재 중앙시장, 역전시장, 약초시장, 내토재래시장, 덕산면 재래시장, 동문시장 등 총 6개의 재래시장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역전풍물시장(5일장)과 특히,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약 3000여개의 도·소매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일찌기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태백권, 경북북부권 등 3도 접경지역 거점 상업유통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유통환경의 변화 및 소비자들의 구매형태 변화 등으로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청 및 충청북도의 예산과 시비를 투입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계속사업으로 활성화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각 재래시장별 투입예산은 중앙시장 4,460백만원, 역전시장 2,720백만원, 약초시장 1,280백만원으로 시설사업은 아케이드 설치, 진입로 포장, 화장실 정비, 뒷골목 포장, 전기소방공사, 옥외주차장 정비 등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으며 2009년 사업인 중앙시장 냉난방기 설치완료, 역전시장과 풍물시장의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서민 경제의 주축인 중앙시장의 새로운 변모를 위해 지하 주차장 조성, 중앙시장 2층 문화센터 조성 등에 4,180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집중 이행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고객들의 쇼핑환경 및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였으나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구매행태에 대비하지 못하고 예전 방식 그대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변화되지 못하는 의식구조로 인해 재래시장은 투자대비 효과면에서 기대이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특히, 기존의 재래시장 영역을 크게 위축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중심의 상권 입점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어느 지자체 현상과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시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복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한 사례로, 현재 강제동78번지 일원에 (주)신세계이마트가 {2008.11. 25 (주)우리 종합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판매시설(대규모점포)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전 준비절차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를 마치고 지난해 7월 15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금년 10월말 개점을 목표로 건축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 우리시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현재 건축 허가된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규제할 법적사항이 없어 연말 대형마트 입점은 불가항력이라는 사실과 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의 기본인프라로써 제반 도시여건과 시민욕구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모든 면에서 열악한 재래시장에 정책적우선과 예산투자 등 집중적인 행정력을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그러면,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인과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해보면
 -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점포의 매출액이 감소
 - 대형마트의 경우 본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소재하여 매출액의 대부분을 본사로 송금하여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
 - 매출감소로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점포의 폐업이 증가
 -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중소유통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거래시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시 지역의 재래시장 및 유통시장에는 상권 잠식등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이를 구체적인 이행 정책 과제사업으로

《첫째》 대형마트의 지역 환원사업으로 대형마트로 하여금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종사자의 지역민 우선 채용, 영업이익의 일부 지역 환원, 유통기법 및 고객응대 요령 등에 대한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 대상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대형마트가 우리지역에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닌 서로가 상생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의회와 협의하에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둘째》 재래시장 방문고객 편의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하여 중앙시장 빈 점포를 활용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2층에는 고객 및 상인들을 위한 문화센터도 마련할 계획이며, 내토 재래시장에도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대형마트 입점에 대비한 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셋째》 재래시장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전략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하여 성과(5월부터 11월말까지 전국에서 8천여명 방문)를 거둔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금년도 목표 1만명 달성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활력을 줄 계획이며, 제천사랑(재래시장)상품권의 판매확대를 통한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유통교육도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도입 실시하겠으며,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지역의 재래시장 보다 활성화된 선진 재래시장을 견학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 및 친절환대요령 등을 체험하여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공동마케팅지원사업에도 응모하여 다양한 이벤트 및 고객서비스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사업 추진으로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기존 거래관행 및 다단계 유통경로에 따른 고비용 발생으로 도매유통의 물류사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도매물류센터 대책이 절실함에 따라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도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비자 욕구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상인들의 자구노력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한 업종구조 개선을 통한 의타심 불식과 상인마인드 변화와 의식개혁을 통한 신뢰회복 및 차별화된 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정체성 확립,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경영인식 제고, 상인회원 간 불신해소를 통한 시장간의 공동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본적으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하여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도 대형마트와 경쟁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의 전환, 기존의 상행위 관습에서 벗어난 친절한 서비스 및 청결한 환경 등의 방안과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 대형마트 입점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잡는 슬기로운 지혜의 결집을 통해 지역 유통시장을 변화 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시에서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발굴 시책화하여 우리시 만이라도 서로 공존하는 지혜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재래시장별로 지원내역과 대책을 원칙 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은 1989년도에 신축된 전국 유일의 맘모스 건물 재래시장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비 3,430백만원(국비 729 도비 243 시비 1,939 자부담 519)을 투자하여 아트리움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 명시아월사업으로 냉난방기 설치 등에 1,030백만원(국비 600 도비 100 시비 230 자부담 100)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해 중앙시장 주변 노상주차장(16면) 조성에 3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이벤트행사에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72백만원)도 추진하였습니다.

○ 2007년 명시아월 사업인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 3,473백만원(국비2,215 도비 347 시비 911), 문화센터 조성에 707백만원(국비 424 도비 71 시비 141 자부담 71)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기타 이벤트행사와 교육 및 활성화 행사 등에 20백만원 (시비)을 확보하여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앙시장 활성화의 기본은 주차장사업이 최우선이며, 현재 시장 주변과 시장지하의 주차장만으로는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시민 및 상인들의 불만이 커 작년에 노상주차장 16면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중앙시장 지하 주차장을 조성을 위해 보상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역전시장입니다. 역전시장은 1960년경에 개설된 시장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2,534백만원(국비 1,152 도비 217 시비 1,165)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공사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신축에 1,260백만원(국비 720 도비 120 시비 360 자부담 60)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추석맞이 이벤트행사에 11백만원(국비 5, 시비 4, 자부담 2)을 지원하였으며 제천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연구용역(72백만원)도 중앙시장과 함께 추진 한바 있습니다.
- 금년도에도 중앙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벤트행사와 교육 및 활성화 행사 등에 20백만원(시비)을 확보하여 역전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역전시장은 과거 제천역이 철도운송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당시에는 많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기차역 인근에 위치한 시장을 방문하여 활기를 띠었으나 자가용의 증가 및 철도운송의 쇠퇴와 소비자들의 변화되는 구매패턴에 발 빠르게 대응치 못하여 점차 침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 역전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전시장만이 가지는 특화된 상품(먹거리 등)으로의 변화가 필수이며 또한 역전시장만의 다양한 마케팅전략과 고객에게 만족을 주어 찾아오는 시장이 되도록 체질 개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시민 및 관광객들이 역전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5일마다 열리는 풍물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행사와 재래시장 러브투어도 연동하여 역전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약초시장입니다. 약초시장은 1993년도에 신축된 시장으로 2005년도에 사업비 800백만원(국비 480 도비 80 시비 240) 투자하여 아케이드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강화도어 설치 외 1건에 280백만원(국비 168 도비 28 시비 56 자부담 28)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우리시가 한방건강도시로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속에 약초시장의 현대화가 급선무라는 인식하에 약초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72백만원)도 다른 재래시장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 약초시장이 명실공히 우리지역의 대표적 특산품인 약초를 주거래 품목으로 하는 전문화된 또한, 전국약초 유통량을 크게 좌우토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적 관심과 대책에 열정을 두고 약초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선, 약초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및 관광객들을 위한 대형차량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차장은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약초시장 위치상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제반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 더욱 연구하여 부지마련과 조성을 위해 2010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약초시장은 다양한 제품을 소포장하여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중국산 약재에 대응하는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약재의 유통을 위한 상인교육 및 친절 서비스도 실천하도록 지도하여 ①국내산만 취급하는 약초시장(정예화) ② 소비자자 신뢰할 수 있는 제천산 GAP 종목만 취급하는 시장(특성화)여건을 특화하겠습니다.

4 다음은 이외 재래시장입니다.

- 내토재래시장은 2007. 8. 6에 덕산면 재래시장은 2007. 12. 20에 동문시장은 2007. 12. 28에 재래시장으로 인정등록 되었습니다. 내토재래시장은 금년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신축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이벤트행사와 교육 및 활성화 행사 등에 20백만원(시비)을 지원하였으며, 년 13회 정도 번개세일 자체 이벤트 행사와 수시 이벤트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 올해에도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청의 계획에 맞춰 2010년 아케이드 공사 및 화장실 건축공사 예산확보하여 시설현대화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문제와 대책은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 분들의 숫자만큼이나 어렵다고 봅니다.
- 결국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행정기관의 지원에 의한 환경개선 사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점포주와 상인 등 재래시장 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재래시장 전체를 바로 보는 자세로 활성화에 임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우리시에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책은 구체적 과제를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아울러 시장별 특성화 작업을 해당시장 상인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지역 거버넌스의 모델화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정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성 명 김 병 룡 (산업건설위원회)
답 변 자	농업축산과장 엄 두 용
제 목	제천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p>질문요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업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은? 2. 농촌의 초고령화 시대 농가소득 정체상황 대응을 위한 고령농(高齡農) 일감 갖기 등 농외소득원 개발 방안 및 노동력 해소방안은? 3. 제천시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학적 영농을 위한 토양도(土壤度)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은? 	
<p>답변내용</p> <p>제천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여 주시고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병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먼저 축산업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p>○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한우산업발전대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 한우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2009년부터2013년까지 「한우브랜드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 생산회, 실무팀을 구성하는등 브랜드의 조직정비로 현재 밀소를 1,000두 규모에서 3,000두 이상 확보하고 정예농가 50호를 육성하는등 생산기반구축과 사료, 혈통, 사양관리(삼통일)통일로 품질균일화 및 고급화와 전문가의 컨설팅</p>	

팅, 교육등을 통하여 90%이상 고급육을 생산하고 이미지 향상상을 위한 무항생제·친환경축산 인증과 햅쌈(HACCP)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브랜드판매점 건립(10억원), 인터넷(G-마켓)홍보·판매, 대형유통 업체, 음식점, 대도시 등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마케팅 등 유통망을 확대하여 나가고 안전하고 위생적이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으로 차별화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 전국 제일의 명품브랜드로 육성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한우를 축산분야의 전략사업화(한우산업 집중육성)로 추진하기 위해 「한우산업발전 및 육성지침」을 마련 안정적인 한우사육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선택과 집중투자를 꾀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의 명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는등 한우산업 브랜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다음은 농촌의 초고령화시대 농가소득 정체상황 대응을 위한 고령농 일감맞기등 농외소득원 개발방안 및 노동력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천시 농업현황는 경지면적 감소와 65세이상 고령농 비율이 (14.0%,2009년통계자료)증가추세로 급격히 고령화됨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 고령농에 대한 노동력해소를 위해 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 보행형관리기지원사업, 벼 육묘상토지원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촌 관광마을 벤치마킹, 농촌 체험투어,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령농을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농촌건강 장수

마을 육성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술 혁신을 통한 전업농을 육성 첨단기술 농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영세 고령농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농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 주체 육성에 전념 하겠으며, 경쟁을 통한 생산과 유통의 효율화, 농업부분 저탄 소 녹색성장으로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겠습니다.
- 농촌문제 해결에 가장 어려운 경쟁에서 소외된 고령농, 영세 농에 대하여는 배려의 차원에서 경영이양 직불제 확대, 고령 은퇴농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영농을 지속하는 고령농에 대한 간접적인 영농편의 확충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하여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 특히 고령농 일감갓기와 농외소득의 개발을 위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로 부가가치를 높이하고자 1차 가공에 따른 소포장재 작업을 적극 권장하여 희망하는 마을단위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제천시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학적 영농을 위한 토양도(土壤度)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토양도는 토양종류별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하여 토양특성에 알맞은 작물의 선택, 토양개량 및 시비개선 등 농경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조사한 결과를 1:25,000 지형도위에 토양의 특성을 알기 쉽게 표기한 토양지도이며 정밀토양도는 일반적으로 소지역인 시군단위로 조사발간 되어 정부주요기관, 대학교, 각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보급되어 농업, 건설 및 환경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제천지역의 경우 남부지역(수산, 덕산, 한수)은 석회암, 천매암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약초류, 양채류, 엽채류 등의 작물은 연작재배 등에 비교적 강한 편으로 재배에 적합하나 북부지역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별 토양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시는 수도작의 경우 2006년부터 지역별·작물별 토양 검정치에 의거 과학적인 시비 처방으로 작물별 적정시비유도와 비료생산 공급체계를 개선 하고자 주문배합(B·B)비료를 공급하여 비료과다사용에 따른 자원낭비억제 와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비료사용의 과학화로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경감과 균형시비를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문배합비료 공급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좋으므로 계속지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토양의 화학성 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사업, 토양개량제 사업등에 토양도를 활용하겠으며 토양도의 웹서비스(농진청 흙토람)를 통하여 필지별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토양의 적성등급 등을 검색 활용하여 토양에 맞는 작물을 선택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지원사업과 농업인 현지 지도시 토양도를 활용한 과학영농실천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병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농업 정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